

비트겐슈타인과 모순* †

박 정 일

【요약문】 최근에 양은석은 「비트겐슈타인과 초일관성: 비트겐슈타인의 반실재론」에서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약한 의미의 초일관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은석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과 수학, 그리고 모순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가능한 한 공정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은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대단히 특이한 것이라고 간주하였고, 더 나아가 마치 어떤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는 것처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모순과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더 이상 특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옳기 때문이다.

【주제분류】 논리철학, 수학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모순, 참다운 모순, 모순의 형식, 초일관 논리

* 접수완료: 2008. 1. 10 / 심사 및 수정완료: 2008. 2. 15

† 이 글은 2007년 11월 28일, 부산대학교 철학과에서 열린 콜로퀴움에서 발표한 것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당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몇몇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해 주신, 이영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양은석은 「비트겐슈타인과 초일관성: 비트겐슈타인의 반실재론」(『철학』, 2007, 제92집, 161-179쪽)에서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으로부터 모든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약한 의미의 초일관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함의에 관한 한 전건과 후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관주의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에서 확인되는,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의 논쟁에 대한 이승종(2002)과 박정일(2002)의 해석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

“초일관 체계”는 최근에 골드스타인(L. Goldstein), 프리스트(G. Priest) 그리고 루트리(R. Routley) 등이 옹호하고 발전시킨 논리학의 한 체계이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바탕으로 한 양은석의 주장이 그 자체로 흥미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러한 해석과 주장이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냐 하는 점이다. 과연 양은석의 (더 나아가 초일관주의자인 골드스타인, 프리스트 그리고 루트리의) 논의와 주장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특히 모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공정하게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이 글에서 양은석의 시도는 부분적으로 옳을 뿐 대부분 빗나간 것이라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 그는 논리학과 수학, 그리고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왜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은석의 시도를 다루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시도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오

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오해의 방식을 다루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공정하게 조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그저 양은석의 논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소극적인 논의만을 전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과 수학, 그리고 모순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명하는 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은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대단히 특이한 것이라고 간주하였고, 더 나아가 마치 어떤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는 것처럼 평가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러한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순과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더 이상 특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옳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모순은 전기 철학으로부터 후기철학을 망라하고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이다. 사실상 그의 『논리철학논고』는 모순과 관련된 문제를 계기로 포기되었고¹⁾, 이후에는 모순과 관련된 문제는 ‘의미’의 문제와 끈질기게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짧은 논문에서 조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여 나는 모순과 관련된 그의 핵심적인 사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생각을 조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모순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오해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2절, 3절).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의 명

1) 소위 “색깔 배제 문제”를 말한다. 참조: 박정일(2004).

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를 문제 삼게 된다. 특히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은 뜻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게 될지를 문제 삼게 된다(4절). 다음으로 우리는 양은석이 주장하듯 과연 비트겐슈타인이 약한 초일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논리철학과 수학철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인 태도와 관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5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 중 가장 특이하다고 평가하는 것, 즉 ‘수학의 위기’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모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튜링의 다리”에 대한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의 논쟁을 다루게 될 것이다(6절, 7절).

2. 모순이란 무엇인가?

대충 말하면, 모순이란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와 같은 형식의 명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모순 명제란 ‘ $p \cdot \sim p$ ’ 형식의 명제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논의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더구나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논의를 보면 뭔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모순’과 관련된 자신의 논의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는 빈 학파와의 대화에서 바이즈만(Waismann)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 규칙들이 하나의 계산체계를 형성하지만, 단지 하나의 다른 것을 형성한다고 말해야 하겠다. 주요한 점은 우리가 모순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한]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그 말로 나오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WVC, p. 175)

다른 철학적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논의는 걸돌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중은 비트겐슈타인의 ‘모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은 한 문장이 ‘ $p \cdot \sim p$ ’라는 명제 형식에 대입되는 사례라는 사실이 그 문장이 모순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보았다(이승중(2002), 23쪽). 이승중은 이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 (1) 이것은 빨간색이다.
- (2) 이것은 파란색이다.
- (3) 흰 말은 검은 말을 뛰어넘어야 한다.
- (4) 어떠한 말도 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승중은 이러한 예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예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귀결을 얻게 된다. 첫째, 두 명제의 연결이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결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1)과 (2)의 연결, (3)과 (4)의 연결은 모두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각각 모순을 일으킴을 우리는 보았다. 둘째, 두 명제의 연결이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결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다.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것은 빨간색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분명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지만 그 명제에 두 번 나타난 ‘이것’이 각각 다른 색깔의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그 명제는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RPP I, §37). 셋째, 두 명제가 주어졌을 경우 우리는 그 두 명제가 정말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오직 그것들이 쓰

여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두 명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는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의 쓰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승종(2002), 145-6쪽)

이러한 이승종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옳을 뿐 엄밀하고 정확한 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공허하고 사소한 것이다. 이승종이 제시하는 첫 번째 귀결과 두 번째 귀결은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을 다소 잘못 읽은 결과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첫 번째 귀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과연 이승종의 주장과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1)과 (2)의 연접, (3)과 (4)의 연접은 모두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각각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 명제의 연접이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접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의: 여기에서 모순은 논리적 모순이어야 하며 결코 반대(contrariety)는 아니다.

‘이 조각은 녹색이다’와 ‘이 조각은 빨간색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것들의 논리곱을 모순으로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규칙을 부가하지 않는 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WVC, p.127)

이러한 모순과 ‘이 조각은 녹색이다’와 ‘이 조각은 빨간색이다’라는 명제들 간의 모순은 경우가 같다. 그 명제들은 있는 그대로는 전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우리가 그것들 모두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 다른 통사론의 규칙을 도입할 때에 서로 모순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모든 모순은 논리적인 모순이어야 하며, 반대(contrariety)의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예를 들어, 기하학에서 내가 한 증명으로부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와 같다고 결론 내리고, 다른 증명으로부터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두 결론은 모두 동시에 성립할 수

도 있을 것이며 나는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공리를 적용조차 할 수 있을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만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한 가지 측정 방법에 의해 어떤 한 값과 같고 다른 측정 방법에 의해서 다른 값과 같게 된다면 말이다.

나는 그 곱이 모순이라는 통사론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할 (postulate) 때에만 어떤 한 모순을 얻는다. (WVC, p.149)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서 ‘모순’과 ‘반대’를 구분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순’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²⁾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 조각은 녹색이다’와 ‘이 조각은 빨간색이다’에 대해서, 그 논리곱(연언)은 그 자체로는 모순이 아니며 반대일 뿐이다. 이제 여기에 어떤 통사론의 규칙이 도입되면, 비로소 그 연언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된다. 이승중은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1)과 (2)의 연언이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 명제의 연접이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접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잘못 규명하고 있다. 요컨대 그 연언(연접)이 어떤 통사론의 규칙 하에서 (즉 이승중의 표현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연언 자체는 반대일 뿐이지 모순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승중은 “두 명제의 연접이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접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것은 빨간색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분명 ‘ $p \cdot \sim p$ ’의 형식을 갖지만 그 명제에 두 번 나타난 ‘이것’이 각각 다른 색깔의 사물을 지칭하는

2) 물론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반대(contrariety)”는 표준 논리학의 반대대당(contrary)이 아니라 소반대대당(subcontrary)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대대당의 관계에 놓이는 명제들은 동시에 참일 수 없고, 소반대대당의 관계에 놓이는 명제들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반대” 관계에 놓이는 명제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경우에는 그 명제는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는 설득력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승중이 위에서 지적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RPP, 3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내가 (상이한 대상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는 모순인가? 그리고 그 두 낱말 “이것”이 상이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문장은 모순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두 개의 “이것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은 그 낱말이 어제 지녔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는 여기와 저기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 그 문장은 “하얗게 씨는 하얗게 변했다(Mr. White turned white)”와 같은 문장과는 경우가 같지 않다.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모순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사용을 지니고 있다. (RPP, 37절)

이 인용문은 사실상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단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문장에서 각각의 “이것”이 상이한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문장이 모순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문장이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³⁾ 놀라운 것은 이승중의 지적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그 문장이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이한 대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가 모순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익숙하다(그리고 이것이 이승중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하게도 위의 인용문에서 그 문장이 모순이라고

3) 혹자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에서 “이것”은 둘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다. 단, 그는 “그러나 그 문장은 사용을 지니고 있다”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서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절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왜 그 문제가 되는 문장을 ‘모순’이라고 불렀는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승종의 세 번째 귀결은 매우 공허하고 사소한 것이다. 이승종에 따르면, “두 명제가 주어졌을 경우 그 두 명제가 정말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의 쓰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순 명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모든 명제, 다른 모든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 점은 “의미는 사용”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모토를 음미해 보면 알 수 있다.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이다”가 동어반복인지, ‘나무’가 나무를 가리키는지는 어쨌든 그 표현들이 사용되는 언어놀이를 살펴볼 때에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용, 또는 어떤 종류나 방식의 사용이 ‘모순’인지 여부를 결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한, 이승종의 지적은 대단히 공허할 뿐이다.

3. 모순의 형식과 참다운 모순

앞 절에서 우리는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규정에 대한 이승종의 생각은 단편적이라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어떤 명제가 모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공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전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고, 다음 절에서는 후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충 말하면, 모순이란 $p \cdot \sim p$ 형식의 명제이다. 그러나 논리학, 수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모순은 매우 다양한 것들에 적용되는 말로 사용된다. 논리학에서는 예를 들어, $p \equiv \sim p$, $(p \cdot \sim p) \cdot q$, $(p \equiv \sim p) \cdot q$, $\sim(p \vee \sim p)$ 등도 모두 모순이라고 부를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는 논리학에서 모순이란 $p \cdot \sim p$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명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을 바로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학에서 예컨대, 힐베르트는 $0 \neq 0$ 을 모순이라고 부른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어법이 불러일으킬 언어적 혼란을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법을 인정하고 있다(WVC, p.176).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순’이나 ‘모순과 유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컨대 우리는 평범한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좋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햇빛이 비치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가 오면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광화문에는 비가 오고 신림동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고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한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는 한 지점에 있고 동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모순’인가?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한다. 첫째, 이 경우 우리는 그 문장들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그것들은 모두 사용을 지닌다. 둘째, 이 경우 우리는 그 문장들이 “참다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참다운 모순과 형식을 공유할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상이한 대상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가 모순이라는 지적은 첫 번째 대담 방식에 속한다. 이 외에도 비트겐슈타인은 이와 유사한 다양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확실히 모순을 승인할 수 없다! - 왜 그럴 수 없는가? 우리는 이런 형식을 때때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용한다. 물론 드물게 그렇지만. - 우리는 모순이 항시적인 도구가 되는 어떤 언어 기술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운동 중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장소에 그것은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는 모순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RFM, V 부, 8절, 강조는 필자)

그렇다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 - 그리고 모순이 실제로 종종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예를 들어, 우리는 평범한 날씨라고 의미하면서, “글썸, 날씨가 좋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하네. 그리고 혹자는 수학에 이 사용을 심지어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네. (LFM, p.176)

감각-지각의 개념들이 표상하기(Vorstellen)의 표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표상하기’에는 본질적이다. (“나는 ...을 듣고 듣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청각적인 표상의 표현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순의 형식에 대한 사용.) (RPP, 885절, 두 번째 강조는 필자)

“왜 어떤 모순은 수학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까?” - 자, 왜 어떤 모순도 우리의 단순한 언어놀이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는 확실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생각 가능한 언어놀이를 다스리는 근본 법칙인가?

하나의 모순이 명령에서 예컨대 놀람과 망설임을 생기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이것이 이 언어놀이에서 모순의 목적이다. (RFM, III부, 57쪽)

이제 우리는 ‘모순’이 위와 같은 방식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모순’은 사용을 지니므로, ‘모순’은 뜻이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비록 모호하지만) “의미는 사용”이기 때문이다. 그 ‘모순’들은 각각 주어진 사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용되며, 각각의 상황에서 참인 진술이 되거나 “모순적 명령”인 경우 어떤 일정한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위와 같은 사용을 “모순의 사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부른 것처럼 “모순의 형식에 대한 사용”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의 형식”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참다운 모순(eine wahre Kontradiktion, a genuine contradiction)”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h \in h \equiv \sim(h \in h)$ ’는 ‘참다운 모순’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확실히 이 모순은 어떤 뜻있는 명제가 아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논리학의 동의반복도 확실히 뜻있는 명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그 모순은 참다운 것이다”는 다음을 뜻한다: 그것은 증명된다; 그것은 단어 “ h ”에 대한 규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 적용이란 “ h ”는 “ $\{ \in h$ ”에 대입되었을 때 어떤 명제도 산출하지 않는 단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모순은 참다운 것이다”는 다음을 뜻한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모순이며, 따라서 당신은 단어 “ h ”를 “ $\{ \in h$ ”의 논향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RFM, V 부, 21절)

다시 당신은 “하나의 모순이 어떤 뜻도 지니지 않는다”가 하나의 모순의 뜻이 무의미한 것(Unsinn)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모순들을 우리의 언어로부터 배제한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사용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일 “비가 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가 뜻을 결여한다(sinnlos)면, 이는 다시 어떤 노선

들에 따른 확장이 이러한 기술어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정상적인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는 그 문장은 어떤 분명한 의미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RPP II, 290절)

그리고 이제 모순에 대해 논의하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우리가 말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용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점은 이렇다: 모순을 ‘거짓인 명제’로서 생각하지 말라(“확실히 이것은 그렇지 않다” 등등). 그러나 이 말은 만일 모순이 실제로 우리를 오도한다면 유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LFM, p.223)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사용을 지니지 않는**” 모순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사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순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순의 형식은) 사용되고, “어떤 분명한 의미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언어놀이에서는 분명한 사용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분명한 사용도 지니지 않는 모순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참다운 모순”이다. 참다운 모순은 “뜻을 결여하는”(sinnlos) 명제이다. 그러나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와 “눈이 오고 눈이 오지 않는다”가 서로 구분되는 뜻을 지니는 한에서 “하나의 모순의 뜻은 무의미한 것(Unsinn)”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다운] 모순들을 우리의 언어로부터 배제한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사용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⁴⁾

4) 비트겐슈타인의 “참다운 모순”과 초일관주의자들의 “참인 모순(true contradiction)”이 명백하게 상이한 개념이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에서 나오는 그렐링의 역설에서와 같이 우리가 어떤 모순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 그래서 일정한 가정 하에서 증명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그 모순적 결론을 “명제”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또 “h”를 ‘ $\xi \in h$ ’의 논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초일관주의자들은 그러한 모순적 결론이 말 그대로 참일 수 있다고

그러나 일견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견해는 대단히 불안정한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는 사용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부터 모순들을 배제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정상적인 언어놀이에서 모순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가? 예컨대 우리는 귀류법 논증에서 모순을 사용하지 않는가? 따라서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한 사용을 지닌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모순은 사용되고 (또한 의미는 사용에 있으므로) 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에게 **참다운 모순**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4. 모순과 사용

비트겐슈타인이 (참다운) 모순이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았느냐 하는 점은 결국 비트겐슈타인 전체 철학을 조망하는 문제에 상당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가 모순에 대해서 (아마도) 최종적으로 언급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순을 수학적 또는 논리-수학적 발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철학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학의 상태, 모순 해결 **이전**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철학의 일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령 난점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놀이를 위한 규칙들을

주장한다. (참고: Priest, G. and Routley, R.(1989b), pp.153-4; Brown, B.(2002), p.632)

확립한다는 것, 즉 어떤 하나의 기술(技術)을 확립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규칙들을 따를 때 사태가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규칙들에 자승자박 당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규칙들에의 이러한 자승자박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원하는 것, 즉 일목요연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뜻함**이란 우리의 개념에 어떤 빛을 던져 준다. 왜냐하면 저 경우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태는 우리가 뜻했던, 예견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순이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그건 내가 뜻했던 것은 아닌데…”이다.

모순의 시민적 지위, 또는 시민 세계에서 모순의 지위: 이것이 철학적 문제이다. (『철학적 탐구』, 125절)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모순의 시민적 지위, 또는 시민 세계에서 모순의 지위”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통해 “모순은 뜻을 지니는가?”라는 물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사실상 이 물음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 물음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는 듯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순들이 우리의 언어놀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모순을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자.”(RFM, II부, 79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다운) 모순은 뜻을 지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에게 명확한 대답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하게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결국 “모순은 뜻을 지닌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단, 이때 모순은 경험적 명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뜻을 지니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도구에 비유하고 또 도구로 파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장을 도구로 간주하라, 그리고 문장의 뜻은 그 사용이라고 간주하라.”(『철학적 탐구』, 421절). 만일 전

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와 같이 명제가 그림으로 파악되고 명제의 의미가 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면, 모순과 동어반복은 의미를 결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명제가 도구로 파악되고, 명제의 의미가 도구의 쓰임이나 역할로 파악된다면, 동어반복과 모순은 사용되는 방식에 따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다면 모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모순은 하나의 놀이 내부에서 어떤 수순을 위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놀이 전체의 규칙들과 관계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어떤 하나의 놀이를 위한 규칙들을 확립”하며, 그 다음에 규칙들에 모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칙들을 따를 때 사태가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규칙들에 지송자박 당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규칙들을 점검하고 어떤 규칙들을 고침으로써 놀이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놀이를 하게 된다.⁵⁾

그렇다면 모순이 경험적인 명제와는 다른 “시민 세계에서 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경험적인 명제나 자연과학적 명제는 어떤 경험적 사태에 대해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순이나 동어반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순과 동어반복은 모두 우리의 언어에서 **사용된다**. 반면에 **경험적 사태에 대해서는 경험적 명제는 적용되지만, 동어반복과 모순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경우, “지금 비가 온다”라는 경험적 명제는 그 사실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어반복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이를 **공**

5) 물론 우리는 수학에서의 “귀류법” 증명에서 모순이 사용되는 경우도 옆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모순은 “개념 형성”이라는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

허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모순 명제는 어떤 사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만일 누군가가 햇빛이 비치는 상황에서 안개비가 내리는 경우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이 그러한 상황에 적용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그의 문장에서 “그리고”와 “아니다”의 원래의 의미를 바꾸어 버렸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리학의 명제들이 실천(Praxis)에서는 정보로서 어떠한 적용도 지니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RFM, 부론 I, 20절)

논리학의 명제는 특정한 경험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지 않는다. (LFM, p.172)

논리학의 법칙들이 경험에 의해 확증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 동일한 것이 연역의 규칙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fa는 (x).fa.로부터 따라 나온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도 그것이 따라 나오는지 또는 따라 나오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LFM, p.200)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듯이, 논리학의 명제는 (더 나아가 수학의 명제는) 특정한 경험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학의 명제와 특정한 경험이 일치한다거나 불일치한다는 것은 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어반복과 모순은 어떤 경험적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⁶⁾

논리학의 명제와 마찬가지로 수학의 명제도 어떤 경험적인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1 + 1 =

6) 동어반복이나 모순이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동어반복이나 모순은 수학이나 일상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

2"에 대한 반증 사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합하면 물 한 방울이 된다고 하면서 " $1 + 1 = 1$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1", "+", "="의 원래의 의미를 바꾸어버렸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수학적 명제들은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25 \times 25 = 625$ 라는 진술을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방식에서이다. 우리는 경험과 독립해서 그것의 옳음과 그름을 가려낸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경험과 독립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까닭은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르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에 의존하는 까닭은 만일 사정이 이와 달랐다면 여러분은 이 계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때문이다. 그것의 증명은 그것이 경험에서 유용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증명이라고 불릴 뿐이다. (LFM, pp.41-2)

" $25 \times 25 = 625$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처음에 경험 때문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 경험에 대해 말하는 표현 규칙이다. 우리는 "그 물체는 더 무거워졌음에 틀림없다"라거나 "그것은 계산된 무게와 편차를 보인다"라고 말한다. (LFM, p.44)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수학적 명제는 한편으로는 경험과 독립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과 비독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중대한 오해이다. 우리는 자연사와 인류사의 관점(간단히, 통시적 관점)에서 수학적 명제들이 경험으로부터 비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 $1 + 1 = 2$ "와 같은 수학적 명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관점(간단히, 공시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일 뿐이다.

5. 모순과 수학철학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의 시민적 지위, 또는 시민 세계에서 모순의 지위”, 바로 이것이 (모순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철학적 탐구』, 125절). 바로 이 언급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과 수학철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양은석의 주장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양은석의 전혀 상반된 파악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은석은 이승종(2002, 23쪽)과 같이,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으로부터 모든 명제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리스트와 루트리니는 「초일관 논리의 역사」에서 초일관 논리를 사소하지 않으면서 ϕ 와 $\sim\phi$ 를 모두 허용하는 모순된(contradictory)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로 규정한 후, 믿음의 문제처럼 사유차원에서 모순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약한 초일관론(weak paraconsistent position)으로, 그것을 넘어서 실제 즉 세계차원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을 강한 초일관론(strong paraconsistent, i.e., dialethic, position)으로 간주한다(Priest & Routley(1989a), 3-4쪽). 그리고 현대 논리학사에서 독립적으로 그러한 접근을 한 인물로 비트겐슈타인을 꼽는다.

이들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는 역설을 포함한 모순을 쓸모 없는 (또는 무의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측면이 모두 있다(같은 글, 36-37쪽). 가령 “한 언어 놀이는 어떤 모순에 의해 그것의 의미를 즉 언어 놀이의 성격을 잃을 수 있다(RFM, 208쪽)”는 것은 전자 측면의 예에, “피해야 할 한 가지 잘못이 있다: 사람들은 분명히 모순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RFM, 377쪽)”는 후자 측면의 예에 해당한다. 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이론들(언어 놀이들)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약한 초일관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Priest & Routley(1989a), 41쪽). 프리스트와 루트리니는 비트겐슈타인이 초일관 논리로 불릴만한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체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는 점에서 약한 초일관론적 입장에 있다고 본다(같은 글, 39-40쪽). (양은석(2007), 173쪽)⁷⁾

양은석은 비트겐슈타인이 프리스트와 루트리가 부르는 바, “약한 초일관론”을 주장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제시한 근거가 설득력 없는 것이라고 논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양은석(2007), 174-177쪽). 우선 그가 파악하는 바, 초일관 논리란 “사소하지 않으면서 ϕ 와 $\sim\phi$ 를 모두 허용하는 모순된(contradictory)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인데, 믿음과 사유의 차원에서 모순을 허용하는 입장은 “약한 초일관론”에 해당되고, 실제 세계의 차원에서 모순을 허용하는 입장은 “강한 초일관론”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초일관 논리에서는 “사소성은 받아들일 수 있지

7) 양은석은 위의 인용(RFM, 377쪽; RFM, V, 12절)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자.

피해야 할 오류가 하나 있다: 혹자는 모순이 뜻이 없어(sinnlos)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만일 우리가 ‘p’, ‘~’, ‘·’이라는 기호들을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면, ‘p · ~p’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일관성 있게’ 그러그러한 사용을 계속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곡선을 일관성 있게 계속 그어 나가기.’)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곧 모순이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즉 그가 지적하는 오류는 “모순이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뜻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순은 우리의 사용에 따라 뜻을 지닐 수도 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첫째 모순을 “모순의 형식에 대한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순’은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이때의 ‘모순’은 참다운 모순이 아니며, 비트겐슈타인이 “시민적 지위”를 문제 삼는 그러한 모순이 아니다. 둘째, 모순을 “참다운 모순”으로 사용하고, 또 이때의 사용을 인정하면서 사용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순은 뜻을 지닌다. 단, 이때의 “뜻”의 의미는 가족유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된다. 양은석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부당하게 소위 “약한 초일관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만 불합리성은 거부한다”(양은석(2007), 165쪽). 이때 그가 말하는 “사소성”이란 “배중률 형태의 문장은 모든 문장으로부터 따라 나온다”(Ψ → (φ ∨ ~φ))는 것이고, “불합리성”이란 “모순 형태의 문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따라 나온다”((φ ∧ ~φ) → Ψ)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약한 초일관론을 주장하였다고 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비트겐슈타인이 믿음과 사유의 차원에서 “사소하지 않으면서 φ와 ~φ를 모두 허용하는 모순된(contradictory)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여야 하며, 둘째 소위 “불합리성”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나는 이러한 양은석(더 나아가, 프리스트와 루트리, 그리고 골드스타인)의 주장은 불행하게도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논의하기로 하자.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고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모순’을 허용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트겐슈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인정하게 될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모순된 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우리는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LFM)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동어반복이 아니라 모순으로 이루어진 논리학이 가능하다고 논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리학에서 사람들은 동어반복들을 다룬다. 그러나 혹자는 그 대신에 모순도 당연히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LFM, p.187)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방식이 바뀐다. 즉 그 적용에서는 모순으로 이루어진 논리학과 동어반복으로 이루어진 논리학은 서로 동등한 체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⁸⁾, 비트겐슈타인은 그

8) 3절과 특히 각주 5를 참고할 것.

렐링의 역설이나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말 그대로 참일 수 있다고는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의 다음의 언급은 그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순을 옹호하고 있는가?! 천만에; 말랑말랑한 자를 옹호할 수 없는 것처럼.”(RFM, V부, 12절)⁹⁾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양은석이 비트겐슈타인의 수학 철학을 전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중기 이후의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와 달리 더 이상 논리학자가 아니다. 그는 철학자이다. 그는 논리학이나 수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결코 논리학이나 수학에 간섭하지 않는다. “수학자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LFM, p.13). 따라서 그는 **논리학의 법칙으로서** “모순 명제로부터 임의의 모든 명제가 따라 나온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칸토어의 초한수 이론에 대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수학자들의 특이한 해석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참고: RFM, 부론 II). 마찬가지로 “ $((\phi \wedge \sim\phi) \rightarrow \Psi)$ ”에 대해서도 만일 비트겐슈타인이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특이한 해석이 문제가 될 뿐이

9) 무엇보다도 초일관주의자들은 (이 논문의 3절에서 논의된) 비트겐슈타인의 “참다운 모순”과 “모순의 형식”이라는 구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이 사용을 지니면서 동시에 사용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프리스트와 루트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에 비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참고: Priest, G. and Routley, R.(1989a), pp.35-38).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문제 삼는 모순은 “참다운 모순”이다. 그리고 이는 초일관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에링턴(Arrington(1986)), 리글리(Wrigley(1986)), 이승중(2002)도 이 구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 그것 자체가 논리학의 법칙 또는 진리이나 하는 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다음의 언급을 보면 알 수 있다.

철학은 언어의 실제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단지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철학은 또한 그것의 기초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철학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 철학은 또한 수학도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 그리고 어떠한 수학적 발견도 철학을 촉진할 수 없다. “수리 논리학의 주된 문제”는 수리 논리학의 다른 모든 문제 각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수학의 한 문제이다. (『철학적 탐구』, 124절)

나의 과제는 러셀의 논리학을 안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을 수학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 그렇지 않다면 나는 수학을 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의 위치, 그것의 지위를 공격하는 것이다. (RFM, V부, 16절)

그러나 흑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으로부터 어떤 임의의 결론도 끌어내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물론이다. 그는 바로 그렇게 말했다(그리고 바로 이 점이 양은석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옳은 한 가지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가 따라 나온다”라는 명제가 논리학의 법칙이라거나 논리학의 진리라는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그는 철학자이지 논리학자가 아니며, 논리학자로서 그것에 대해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언어놀이에서 모순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모순에 도달하고 임의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를 추론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비유하자면, 다음의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는 $0/0$ 을 보통 ‘부정’이라고 부른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임의의 수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가상의 수학자는 “그러한 수($0/0$)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수학의 진리(또는 법칙)로 규정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수학자는 “그러한 수($0/0$)는 임의의 수와 동일하다”를 법칙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론적 이유와 목적에서는 어느 쪽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입장에 어떤 거창한 이름이 부여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상적 상황이라면,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이 수학적 진리이나 아니냐 하는 점에는 개입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0/0$ 을 계산해서 임의의 수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는 그저 “그런 계산을 멈추시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이다.

6. 모순과 튜링의 다리

그러나 앞 절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결코 수학자들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수학자들은 수학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어떤 이상(Ideal)”(RFM, V부, 16절)에 투철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모순에 대한 수학자의 미신적인 공포와 숭배”(RFM, 부론 I, 17절)는 그들로 하여금 결눈질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닥친 소위 ‘수학의 위기’는 그렇게 해서 수학자들에게 엄청난 당혹감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모순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신의 목

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나의 목표는 모순과 무모순성 증명에 대한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 증명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RFM, II 부, 82 절)

그러나 도대체 소위 수학의 위기가 일으킨 문제란 무엇인가? 어쨌든 그 문제란 수학 체계에서 어떤 모순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 체계에서 어떤 한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왜 그것은 문제인가? 많은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대답은 모순이 그것이 도출된 계산 체계를 폐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 모순이 계산 체계를 폐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놀이가 있다고 하자. 어떤 마을에 사는 이발사는 “나는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마을 사람은 모두 다 이발하고 스스로 이발하는 마을 사람은 모두 다 이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한 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발 놀이’는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지점에 이르자 “그 이발사는 자신을 이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그 규칙에 따르면, 그 이발사는 자신이 자신을 이발하지 않으면 자신을 이발해야 하고, 자신을 이발하면 이발하지 않아야 한다. 즉 모순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그 이전의 모든 놀이를 폐기시키는가? 그 이전의 모든 언어놀이와 규칙, 표현을 폐기하는가?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모순은 이전의 놀이를 폐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그 해로움이 나타날까?”(LFM, p.211) 비트겐슈타인이 던진 이 물음에 대해서 튜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실제 그 해로움은 어떤 적용에 있지 않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의 경우에

다리가 붕괴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LFM, p.211)

이렇게 해서 ‘튜링의 다리’, 즉 모순이 있는 계산 체계로 지은 다리가 무너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비로소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모순이 있는 계산 체계로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리가 붕괴되었다면 그 원인은 계산 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모순은 경험 명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 모순은 어떤 경험적 사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인과적인 힘도 지니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계산 체계에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어떤 인과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모든 명제를 도출해내고 다리를 건설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계산 체계의 **사용**이 개입된다. 그들은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거짓) 수식을 도출해내고, 이를 사용해서 다리를 짓고 또 다리는 붕괴된다.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이런 경우에는 과연 그들이 하는 것이 ‘계산’인지,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계산 체계’라고 불리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의미**의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의미**의 ‘계산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저 우리는 “모순으로부터 어떤 결론도 끌어내지 않으면” 그 만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에 튜링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규칙을 만든다면, 그는 실제로 모순을 거쳐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우회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결론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LFM, p.220) 이러한 도전에 비트겐슈타인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즉 그러한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단, 그것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튜링과 비트겐슈타인의 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튜링: 간선 복도 중 하나로 들어갈 때 어떤 원형광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죄수들은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원형광장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도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들이 가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종류의 장소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곤란한 것은 오른쪽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광장은 단지 징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 원형광장을 막음으로써 그 곤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그렇다네. 그러나 그것은 프레게의 논리학에 적용되지 않네 - 프레게의 논리학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의미에서 말일세: 우리는 프레게가 갔던 길을 갈 수 있네. 모든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모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그러지 않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가 실제로 산술의 기초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의 곤란은 없네 - 잘못된 어떤 법칙도 없네.

실제로 문을 통해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 데라도 갈 수 있는 장소로 갔던 것은 아니네. 이것이 프레게의 논리학과 더불어 일어났다는 것은 참이 아니네. 만일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프레게의 논리학은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고,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지침을 제공한다네. 사람들은 그러한 곤란에 빠져들지 않는다네. (LFM, pp.227-8)

우리는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가 도출된다는 것을 논리학의 법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에 봉착해서 임의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실제 언어놀이에서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결론을 끌어내지 말라고 규칙을 세우면 그만이다. 그러나 튜링은 모순으로부터 직접 임의의 결론을 이 끌어내는 경우가 아니라 모순을 우회해서도 그러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놀이에서의 그러한 ‘금지 규칙’은 불충분할 것이라고 응수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을 우회해서

임의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도대체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일은 우리의 실제 언어놀이에서는 그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의 실제 실천은 그만큼 신중하며 중요하다. 우리들은 요컨대, 바보가 아니다. 실제로는 수학의 적용이라는 실천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곤란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의 논쟁에 대해서 양은석(2007)은 (치하라와 함께) 관련된 “논증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불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임의의 문장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임의의 문장이 따라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170쪽)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는 튜링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던진 도전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논쟁에서 한편만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은 “불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임의의 문장이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임의의 문장이 따라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여부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튜링의 지적과 같이 직접 모순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순을 우회하여 임의의 문장을 이끌어낼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곤란에 빠져들지 않는다.

7. 맺는 말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초 이른바 “수학의 위기”라는 혼란과 혼동이 여러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때, 전혀 상이한 태도와 견해

를 보였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그것은 전혀 수학의 위기가 아니라
 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위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기라고 간
 주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모순의 발견
 이 수학의 체계를 폐기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모순은 계산 체계를 폐기한다’ - 이 특수한 지위는 어디에서 유래
 하는가? 내가 믿기로는 조금만 공상을 해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기
 반이] 흔들릴 것이다. (RFM, V 부, 12절)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설득력 있는 것일
 까? 나는 이 물음이 현장의 수학자나 논리학자의 관점에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철학적 상황에서 던
 져진 것이라면, 그의 생각은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한다.

“수학의 위기”를 조명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이발 놀이”로 돌
 아가기로 하자. 한동안 잘 나가던 이발사의 규칙이 모순에 봉착했
 다. 이제 이 이발사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문제가 되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은 간단하
 다. 그 이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그만이다. “나는 스스로 이발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이발하고, 스스로 이발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발하지 않는다. **단, 나 자신은 빼고.**”¹⁰⁾ 그러면 더 이상 모순
 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발 놀이”는 계속 진행된다. 둘째,
 우리는 “a는 b를 이발한다”에서 a는 b보다 유형(type)이 하나가
 더 낮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a는 b를 이발한다”는 잘 형성된 문장(well formed

10) 이에 덧붙여서 이발사는 자신을 이발한다고 발표할 수도 있고, 자신을 다른
 사람이 이발한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

formula)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유형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흑자는 정말 위의 상황에서 모순이 도출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엄밀한 공리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리 체계에 대해서도 그가 여전히 모순의 도출 가능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i) 모순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무모순성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ii) 모순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그리하여 도출가능한 모든 모순을 망라할 수 있는) 탐구를 수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i)과 (ii)의 시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만족하게 될까?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는 항상 수학적 체계가 개입되고, 다시 그것의 무모순성이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은 수학적 만족을 제외한다면, “이발 놀이”보다 진전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발사-유형이론”은 철학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것이 지니는 이론적 정교성과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내가 원할 때 나로 하여금 철학하기를 그만두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발견”(『철학적 탐구』, 132절)을 원하는 철학적 상황에서는, 이발사의 “금지 규칙”의 도입과 “이발사-유형이론”의 도입은 그 효과가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발사-유형이론”이라는 논리학 이론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금지 규칙”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상 모순을 피하려고 애쓰며, 또 모순에 이르면 그것으로부터 임의의 명제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왜 우리는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명제를 도출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양은석은 “비트겐슈타인이 일상의 사용에서 (S2)[$\sim\phi \vdash \phi \supset \Psi$]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전건과 후건 사이에) 아무런 의미 연관이 없는 진술을 참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¹¹⁾(양은석(2007), 176쪽)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모순으로부터 모든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을 금하는 논리적 차원의 주된 이유에 해당된다”(167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러그러한 것은 왜 모순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리적 이유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모순을 배제하고 정상적으로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언어 사용의 특징이고, 가령 머뭇거리는 행동이나 의심스러워하는 행위를 “이것을 하라 그리고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형식의 - 즉 ‘p · ~q’라는 형식의 - 지시를 충족시키는 것들과 동일한 행동들의 계열에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 경향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LFM, p.179)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모순으로부터 임의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지 어떤 논리적 이유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놀이와 언어의 실천에서 바로 그렇게 한다.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체 언어 사용의 특징”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놀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11)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문장에 이어서 양은석이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진술이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문장을 덧붙인다는 점이다. 만일 이것이 그 논거일 수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또는, 대부분의) 논리학과 수학을 거부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은 모두 (또는,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다.

참고문헌

- 박정일(2002), “튜링의 다리와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철학”, 『논리연구』 제5집 2호, 67-91쪽.
- _____(2004), “비트겐슈타인은 왜 《논고》를 포기했는가?”, 『논리연구』 제7집 제2호, 71-104쪽.
- _____(2006), “비트겐슈타인과 유아론”, 『논리연구』 제9집 제2호, 59-98쪽.
- 양은석(2007), “비트겐슈타인과 초일관성: 비트겐슈타인의 반실재론”, 『철학』 제92집, 161-180쪽.
- 이승종(2002), 『비트겐슈타인이 살아 있다면』, 문학과 지성사.
- Arrington, R. L.(1986), “Wittgenstein on Contradiction”,
Shanker, S. G.(1986).
- Brown, B.(2002), “On Paraconsistency”, *A Companion to Philosophical Logic*, (ed.) D. Jacquett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Chihara, C. S.(1986), “Wittgenstein’s Analysis of the Paradoxes in his *Lecture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in Shanker(1986), pp.325-337.
- Priest, G. and Routley, R.(1989a), “The History of Paraconsistent Logic: I. First Historical Introduction”, *Paraconsistent Logic*, (ed.) G. Priest, Philosophia Verlag GmbH, München.
- Priest, G. and Routley, R.(1989b), “Systems of Paraconsistent Logic: V.Systems of Paraconsistent Logic”.

- Shanker, S. G.(1986), ed.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 3, Croom Helm.
- Wittgenstein, L. (PI),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3.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 _____ (LFM), *Wittgenstein's Lecture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ambridge, 1939*, ed. Cora Diamond, Cornell U.P., 1976.
- _____ (RFM),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ed. G. H. von Wright, R. Rhees and G. E. M. Anscombe, Blackwell, Oxford, 1978.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박정일 옮김, 서광사, 1997.)
- _____ (RPP), *Remarks on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I, ed. G. E. M. Anscombe & G. H. von Wright, trans. G. E. M. Anscomb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WVC),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ed. Brian McGuinness, Basil Blackwell, 1979.
- Wrigley, M.(1986), "Wittgenstein on Inconsistency", Shanker, S. G.(1986).

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Email: willsam@sookmyung.ac.kr